

다리 부러진 CPU 수리하기

Socket 478규격을 따르는 인텔 펜티엄4 프레스캣 2.8A CPU의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다. 마더보드와 CPU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정품쿨러와 CPU가 본드로 붙인 것처럼 단단히 들러붙어 있어 쿨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CPU가 딸려나와 버린 것이다. 마더보드의 소켓이 CPU의 다리를 짊어주고 있는 채로 말이다. 서너개의 다리가 심하게 휘었고 롱노즈를 사용하여 다리를 똑바로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가 부러지고 말았다. (하늘이 노랑더라)

즉시 인텔 A/S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인텔 고객센터 김XX입니다."

"여보세여? 씨퓨다리가 뿌러졌는데여 어떻게 해야되여?"

"고객님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그게 아니구여, 당신들이 쿨러를 x같이 만들어서 씨퓨가 들러부튼 거거등여?"

"그것 또한 조립 미숙으로 인한 소비자 과실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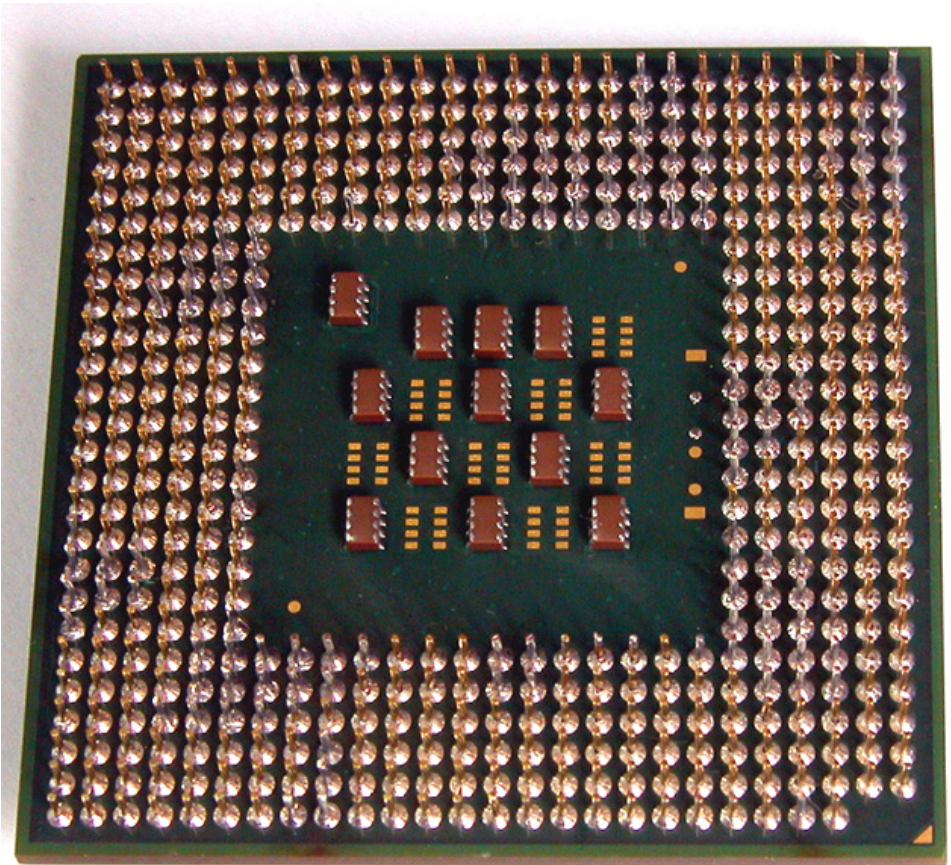
"그럼 서비스 받을 방법이 전혀 없는 거에여?"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해 드리지 않습니다. ^^"

"네.. (즐쳐드셈!) Orz

세계 초일류 기업 인텔의 서비스는 너무도 냉정하다.(그런식으로 살지마라.

!) 결국 A/S는 포기하고 본인과 비슷한 사례를 검색해 보기로 했다. 용산에 가면 땀질해주는 업체가 몇 곳 있다는 정보를 얻고, 용산으로 직행하여 수소문 끝에 선인상가에 있는 한 업체를 찾았다. 은다리 하나당 만원씩에 수리(땀질)해 주고 있었으며, 금다리로 할 경우 개당 3만원이 든다.(은다리로 해도 이상없다고 주장 하고 있음) 휘어진 다리를 바로잡아주는 서비스까지하면 5천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약 1시간 정도의 작업시간 필요)



선인상가에 위치한 [하트전자](#)에서 수리에 성공한 펜티엄4 2.4G CPU, 부러진다리 114개를 용접하고, 휘어진다리 215개를 펴, 전체 329개의 다리를 손본 하트전자의 포트폴리오 CPU(견적이 나오지 않아서 손님이 버리고간 것이라고 함. —.;;)

수리한 CPU를 장착하고 사용해 보았다. 무슨일이 있었냐는 듯이 잘 돌아간다. 고마워요. 하트전자